

베올리아워터, 송도에 교육센터 건립

베올리아워터가 송도에 아시아·태평양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상·하수 처리, 해수 담수화 사업 등 물산업 글로벌기업 베올리아워터(Veolia Water)와 아시아·태평양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0월4일 밝혔다.

교육센터는 2011년 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거쳐 2012년 2월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착공될 예정이며, 착공이 완료되면 베올리아워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직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3000여명의 국내외 연수생이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1/10/05>